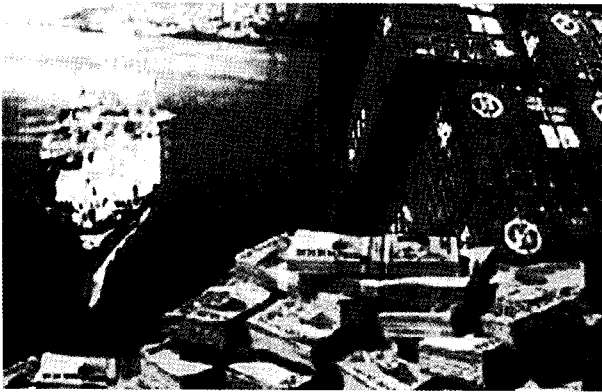


# 수출 판로 중남미로 개척



수출위기 타개를 위해 지역별 수출확대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최근 중국에 이어,

이번에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수출확대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했다. “중남미 수출기업 CEO 초청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29.0%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여 현 수출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중남미는 2004년 이래로 연평균 30%에 달하는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다. 대중남미 수출 증가율:('04)31.4%→('05)29.6%→('06)37.4%→('07)25.2%→('08)29.0%이다. 이러한 수출 증가세를 견지하고, 미국, EU 등 기존 주력시

## 〈 주요 지역별 수출 실적 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2007년			2008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수출	371,489	14.1	100	422,007	13.6	100
중국	81,985	18	22.1	91,389	11.5	21.7
미국	45,766	6	12.3	46,377	1.3	11
일본	26,370	-0.6	7.1	28,252	7.1	6.7
EU	55,982	13.7	15.1	58,375	4.3	13.8
ASEAN	38,749	20.8	10.4	49,283	27.2	11.7
중동	19,721	36.4	5.3	26,647	35.1	6.3
중남미	25,567	25.2	6.9	33,267	29	7.9
대양주	7,983	17.7	2.1	11,216	40.5	2.7
아프리카	8,257	6.8	2.2	9,386	13.7	2.2

장에서 감소하는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으로는 최초로 올해 400억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타겟 시장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중남미는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 자원 개발 등 투자 수요가 꾸준하여 플랜트 및 건설 기자재 등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많은 지역이라고 언급되었다. 중남미의 플랜트 시장 규모는 '07년 기준으로 연 478억불 정도이며 특히 브라질을 중심으로 플랜트 발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에너지 개발 10개년('06~'09) 프로젝트'에 따라 전력생산, 석유 탐사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남미에 대한 플랜트 수출 및 자원 개발 참여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현지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수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현지 발주처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현지 입찰정보 입수·제공을 위해 올 3월, KOTRA 상파울루 KBC(해외지사)에 '수주지원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같은 시기에, "중남미 프로젝트 미션단"을 파견하여 현지발주처와 우리 플랜트 수출 기업간 일대일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플랜트 수출보험 전체 규모도 '09년 43조로 확대하여('08년, 32조) 플랜트 수출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켜줄 예정이며 특히 중남미와 같은 신흥 시장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부보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남미 발주처에 대한 선제적 수출금융 공여를 통해 발전 설비, 자원 개발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자원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제

신용도가 높은 국내 공기업을 주축으로 중남미 공기업과 공동 자원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최근 KOTRA에서 발표한 중남미 진출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전략적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유망품목으로 의료기기, 보안장비, 전자정부 구축 사업, 에너지 절약 상품, LED,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이다.

상파울루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지사화 사업 참여 기업수를 200개사로 확대하는 등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해외마케팅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브라질 원료의약품 전시회, 보안장비 전시회 등 유력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전자정부 수주 지원을 위한 로드쇼 등을 통해 바이어와의 만남을 적극 주선할 예정이다.

